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1, No. 4, pp.52~68(2007)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 디자인에 關한 考察
- 1960年代 디자인을 中心으로 -

沈揆熙* · 曺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課程*
梨花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敎授

A Study on the Design of André Courrèges
- Focussed on the Designs of 1960s -

Shim, Kyu-Hee* · Cho, Kyu-Hwa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Courrèges Look style has been showing up continuously since 1980s in the fashion world. In response to that, this study aimed to look into the trend of design in 1960s and examine the formative artistic characteristics in Courrèges Look in order to explore the Courrèges Look of André Courrèges. Following the flow of the times, the Courrèges's design has transformed and developed through the styles of the pants suit look, the space age look, the mini look and the sporty look. His own style constructed by simple line like a mini skirts, accurate rates, geometric patterns, high tech materials, vivid color and etc, in 1960s. He has also innovated the fields of textile, garment cutting, details, and accessories. The Courrèges Style was expressed by pure&avant-garde style, sporty&modern style, cheerful&reveal style and dynamic&funny style. Functionality with humor to Courrèges was an important element that expresses both youth and casual. For the active, new woman, not only a funtional beauty but also a futuristic sensibility is expressed in the Courrèges Style.

Key Words : André Courrèges(앙드레 쿠레주), Courrèges look(쿠레주 룩), mini look(미니 룩), space age look(우주시대 룩), futurism fashion(미래주의 패션)

Corresponding author: Shim, Kyu-Hee, Tel.+82-11-9174-7178
E-mail: echofsoul@hanmail.net

Ⅰ. 서 론

최근 패션 컬렉션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960년대 스타일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재창조됨으로써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거, 어떤 특정한 시대에 유행한 당시의 디자이너 작품들은 현재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는데 유독 그 어느 시대보다 1960년대 스타일은 유행의 굴곡과 함께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면서 자주 패션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아마도 패션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회, 문화, 경제적 움직임이 실제로는 패션과 굉장히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빠른 속도로 진부해진 과거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현대의 불안한 시대상황이 1960년대 당시의 시대상황과 비슷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196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중 1965년 '미니 룩'을 발표하여 엘레강스한 무드에 젖어있던 당시의 프랑스 패션계에 무릎을 드러내는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오트 쿠튀르 시대에서 프레타 포르테 시대로 넘어가는 모드의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1923-:France)의 디자인들은 '쿠레주 룩(Courrèges Look)'이라는 명칭아래 패션사에 기록되며 지금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전 세계는 미래를 지향하는 '퓨처리즘(Futurism)'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1960년대식 미래주의 패션이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받으며 앙드레 쿠레주의 '쿠레주 룩'이 컬렉션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트 쿠튀르 시대에서 프레타 포르테 시대로 넘어가는 '모드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창조적인 미래감각을 통하여 미래주의적 스타일의 디자인을 제시한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는 현대패션의 모더니즘적, 미니멀리즘적 또는 미래주의적 관점 등의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 일 뿐, 쿠레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쿠레주의 디자인들을 고찰한 후, 쿠레주 디자인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돈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비슷한 상황의 60년대에 패션에 있어서 돌파구적인 새로운 패션 영역을 제시하였던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 경향과 조형적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쿠레주 디자인의 미적가치파악에 참고 자료로의 활용 및 앞으로의 복식디자인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앙드레 쿠레주의 작품집과 국내외 패션잡지 및 패션서적의 시각적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과 그 외 인터넷 자료도 참고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앙드레 쿠레주가 1961년 이후 자신의 숍을 개점한 후 디자이너로서 활약하며 가장 화제를 모았던 1960년대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한정지었다.

Ⅱ. '쿠레주 스타일(Courrèges Style)'의 등장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

1960년대는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삶의 환경이나 질에 영향을 끼치는 패러다임들이 대변혁한 시기로서 패션과 예술, 종교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전통이 위협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의 움직임은 실제로 패션과 굉장히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1960년대 패션계에 영향을 끼친 사회문화적 배경을 크게 베이비 붐 세대인 젊은 세대의 등장, 하이테크 문화 그리고 미니멀리즘과 새로운 역할모델의 등장인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1) 베이비 붐 세대인 '젊은세대(Young-Generation)'의 등장

1960년대는 다양한 의미에서 혁명의 시기였다. 젊은 세대의 혁명은 기성세대에 대한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양식의 개혁이었다. 이 혁명은 사회전반에 있어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 변화는 의식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억압된 체제와 문화에서의 탈출의 자유 등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 세계를 젊음과 자유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러한 대변혁을 일으켰던 중심세력이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였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고, 1960년대 전반 동안 보수 좋은 직장을 잡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간제 일자리나 주말만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여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들은 성인으로의 책임감도 없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입을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10대들이 수입을 갖게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패션 제조업계와 마케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

한편 20세기 초기에는 과학 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지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졌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물질의 충분한 공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소비문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유럽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의하여 많은 수입원이 여가생활에 사용되었으며, 많은 가족들이 휴일을 즐기며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하였다.[2)]

이 시기의 번영으로 1960년대 소비자 사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3)] 이러한 소비문화 사회의 가장 큰 소비자 계층이 바로 앞서 말한 영 문화의 기수였던 젊은 세대였다. 이들은 도시 문화를 지향하며 획득된 경제권과 함께 자기들만의 파워(power)를 형성하였고 기존의 가치에 저항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며 어떠한 때보다 활기차고, 젊고, 생동감 넘치는 시대를 이끌어 갔다. 또한 이들의 "젊음"은 다양한 상품미학에 활용되며, 자신들의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그들만의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2) 하이테크(High-tech) 문화

1960년대는 이전의 과학 기술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인간의 과학문명은 우주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1년 4월 구소련의 '보스토크 1호'가 지구 상공 일주에 성공하자 미국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알드린의 유인(有人)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였다. 끊임없는 우주선 개발과 발사노력은 우주에 대한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며 우주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1960년대 내내 화제거리가 되었고, 우주시대(space age)의 개막은 과학기술 문명의 혁명을 몰고 오게 되어 미래적인 사고[4)]로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달에 착륙한 기간인 1960년대 내내 우주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우주여행과 관련된 재료와 색상은 우주여행에 대한 매혹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시 새로운 기술시대에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 우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은 여러 장식예술분야에서도 우주여행과 관련짓게 하였는데 예를 들면 '우주 보행'과 '달 로케트'등을 주제로 한 직물 패턴이 디자인되기도 하였다.[5)] 특히 패션에선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 첨단적으로 그려지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복식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스페이스 패션(space fashion)이라는 용어아래 미래주의를 상징하는 환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투명하거나 은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유행을 일으켰다.[6)] 이는 우주여행 시 SF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우주선과 주인공들이 우주를 모험할 때 입었던 슈트가 은색이며, 그들의 헬멧이나 우주를 내다보는 우주선의 창문이 투명했고, 우주선이 날고 있는 우주 자체는 눈에 보이는 않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렇게 우주를 테마로 한 미래의 이미지는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과 어울려 사회에 전반적인 통일성을 안겨주게 되며,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상품화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의 호황기를 맞아 3C(Color TV, Car, Cooler)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1968년 영국의 현대 미술 협회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발명되면서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은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또한 당시의 새로운 전자공학 기술의 발전과 신소재의 발견은 디자인의 형식, 스타일, 기능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시대에 미국 벨(Bell) 연구소에서 개발한 '트랜지스터'는 에너지원으로서 낮은 전압으로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며 라디오, 컴퓨터, 가전제품류 등 다양한 곳에 이용되었다. 에너지의 소형화는 제품의 형태에 있어서의 소형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였으며 이런 발전을 통하여 제품들은 보다 정밀하고 가벼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3) 미니멀리즘과 새로운 역할모델의 등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미니멀리즘은 제품의 소형화를 가져 왔다. 이는 다시말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특히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과 함께 디자인상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것(경박단소:輕薄短少)'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 사상은 제품의 소형화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복식에 있어선 미니스커트를 탄생시켰다. 미니스커트야말로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준 현대 모더니즘의 극치이며,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7]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창출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이전의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이상미는 비례와 질서의 균형을 중시한 '비너스(Venus)'를 이상적인 이미지로 오랜 세월동안 그려왔다. 그러나 인간생활문화의 진화와 함께 이상적인 육체미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던 사람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초기그리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육체의 이상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른 육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모델인 트위기(Twiggy)의 마른 몸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새로운 육체미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트위기의 마른 몸은 육체에 대한 개념 부분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즘의 시대정신과도 잘 부합했고, 미니스타일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신체 구조였다. 또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초연함, 고뇌, 세상에 대한 싫증 등 염세주의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은 현대인의 냉철함을 잘 발산하였다.[8] 영화, 사진,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 발달로 시각적인 전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대에 대중들에게 트위기의 패션, 헤어, 메이크업 등의 스타일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소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녀는 6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다.

2. 복식사적 배경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1960년대는 복식에서도 주목할 만한 급격한 변화와 특색이 나타났다. 경쾌한 60년대(swinging)[9]의 젊은 세대들은 영 패션(young fashion)이라 불리우는 그들만의 패션 스타일을 정착시켜 나갔는데, 당시 그들의 자유와 반항정신은 의복을 통해 강하게 표출되었다.[10]

이 당시 세계적으로 영 패션의 흐름은 영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주도했고, 런던의 유명한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와 첼시(Chelsea)의 킹스로드(King's Road)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은 빠르게 세계 도처로 퍼져나갔다.[11]

1960년대 초반의 복식은 여전히 50년대의 연장인 성숙한 남녀의 우아하고 전통적인 의상이 주도하였고, 기능주의 모더니즘의 대표주자였던 가브리엘 샤넬의 무릎 길이의 깔끔한 샤넬 슈트도 유행하였다. 그러나 점차 패션시장은 상류사회나 고급 의상점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유행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감각을 중심으로 한 개인취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젊은이들과 중류·하류계층을 중심으로한 유행이 생겨나서 확산되었다.

가장 먼저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복에 대한 욕구를 감지하여 기존의 복식과는 구별되는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는 옷을 디자인하여 성공한 디자이너는 영국의 메리퀀트였다.[12] 많은 디자이너들이 미니스커트를 선보였지만 그녀는 다양한 미니 룩들을 다른 디자이너보다 먼저 선보임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종종 무계급적 요소를 가미한 믹스 앤 매치 디자인을 발표하여 1960년대 분

위기에 완벽히 들어맞는 디자인들로 6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64년,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인 루디 건라이하는 톱리스(topless) 수영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영복 윗부분(top)이 없이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는 파격 그 자체였고, 오랜동안의 패션의 규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패션 코드가 등장한 것이라 하겠다.

1960년대는 의상 디자이너와 텍스타일 디자이너 모두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현대성과 과학적 진보를 찬양하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도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은색과 흰색이 원색과 조화를 이루어 자주 등장하였고, 소재에 있어서도 광택이 나고 젖은 듯 보이는 PVC, 손질이 쉬운 아크릴, 유리섬유, 폴리에스테르 등 새로운 신소재가 패션에 도입되었다. 당시 파코라반, 피에르 가르댕, 앙드레 쿠레주 등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의 우주 룩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60년대에는 예술과 패션의 접목 역시 활발하였는데, 1965년 봄 컬렉션에서 이브 생 로랑은 몬드리안의 작품을 패턴으로 활용한 몬드리안 룩을 발표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는 현대 추상회화를 패션에 도입한 것으로 백색 옷감에 직선교차에 의해 빨강, 검정,파랑의 강렬한 컬로 표현된 심플한 룩이었다. 이회 엘리트적 예술에서 벗어나 대중성을 지향하고 나선 팝아트는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신선하게 전개되었는데 고매함을 벗어던지고 일상적인 오브제에 눈길을 돌린 그들의 솔직한 태도는 60년대 패션의 대중화와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팝아트적 프린트, 패션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시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옵아트의 강렬한 컬러는 심플한 당시 패션 스타일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의 옵아트식 배색이나 프린트, 패턴 등이 패션에 적극 도입되었다.

한편, 대중문화가 그 파워를 구가하던 1960년대에 락(Rock)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는 그 영향력의 정점에 서있었는데 이들은 음악적으로는 물론 패션으로도 젊은이들을 흥분시켰다. 그들의 패션이었던 모즈룩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모즈룩이란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풍습을 모방한, 사회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복장 스타일을 말한다.

본래 모즈(Mods)란, modernist의 약자로, 1957년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를 배경으로 발생한 소비지향적인 노동자 계층의 자녀를 말한다.[13] 소수만의 스트리트 문화에 지나지 않았던 모즈 문화는 당시 젊은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젊음, 패션, Soul, R&B Scene 등 최근의 음악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연상시키는 용어가 되었다. 모즈는 초기에는 콜린 맥글리스의 1956년 소설 `Absolute Beginners`의 주인공이던 Dean Swift의 모습(좁은 바지, 끝이 뾰족한 신발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1960년대 초중반 좁은 라펠, 플랩 포켓의 흠잡을데 없이 다려진 깔끔한 핀 스트라이프 슈트와 무스를 바른 듯한 헤어 컷 등 말끔하고 세련되게 새로워졌고, 메리퀀트, 앙드레 쿠레주와 같은 미니멀 감각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보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미니멀, 젊은 감각의 디자이너, 락 스타 등이 결합하면서 이러한 모즈 스타일은 60년대 젊음의 문화를 대변하는 또 다른 코드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에스닉 룩이 지배적이었다. 히피들은 자신들이 서구 소비사회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환으로 아프칸 코트, 프린지가 달리 스웨이드 의류, 카프탄, 패치워크, 비즈 등을 사용한 옷을 입었다. 다른 한편에선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젠더에 따른 옷 입기 전통이 무너지면서 복식에 있어서의 유니섹스화 경향이 가속화 되었다. 이는 진, 트라우저, 재킷, 스웨터 등을 파는 부티크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음으로 함께 쇼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1960년대 말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뿐만 아니라 미디, 핫팬츠, 판탈롱 슈트, 청바지 등 모드의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였다.[14]

III.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의 디자인 경향

1. 팬츠 슈트 룩(Pants Suit Look)

1961년 8월 파리 클레버 거리에 자신만의 숍을 개점하고 난 후, 초기 그는 발렌시아가의 문하생으로서 11년간 익힌 테크닉을 바탕으로한 발렌시아가적 작품성향을 지닌 페미닌 룩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앙드레 쿠레주는 1963년 봄, 실루엣이 담배처럼 가느다랗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시가렛 팬츠(cigarette pants)<그림1>를 발표하면서 비로서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파리 패션쇼에 등장했던 수많은 팬츠 슈트 중에서 단연코 전위적이었던 것으로 정확한 재단과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통이 좁은 바지는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다리를 아주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형태의 바지는 쿠레주의 다음 디자인들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형되며 보여지는데 1964년 겨울 컬렉션에서 발표한 팬츠<그림2>는 풀색 소모사로 만든 바지 밑단 앞부분에 트임이 있는 바지로서 발등의 트임선으로 인해 바지의 길이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길어 매우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며 힙에 걸쳐입는 힙 행거(hip hanger) 형태로 되어있다. 한편, 같은 해 그는 복식 역사상 처음으로 배꼽이 보이는 팬츠를 발표하여 그의 대담성을 보여주며 패션계에 또 한 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쿠레주의 팬츠 룩은 데이웨어(day wear)뿐만 아니라 이브닝 웨어(evening wear)로서도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의 팬츠는 이전의 여성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남성복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플리츠(pleats)와 커프스(cuffs)가 없고, 옆주머니와 벨트 고리가 달린 웨이스트밴드(belt-tabbed waistband)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팬츠는 난로 연통처럼 가늘고 타이트하며 가는 고리가 연결된 벨트부분이 힙 바로 윗선에 걸쳐지는 것으로서 매우 패셔너블한 스타일이었다.

앙드레 쿠레주는 팬츠를 타운웨어(town wear)로 디자인함으로써 팬츠를 대중화시켰는데, 그는 자신의 고객들이 바지를 입고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시퀸을 달거나 자수를 놓은 실크로 만드는 등 변형을 통하여 이브닝 웨어처럼 무도회나 극장 등에도 입고 갈 수 있도록 했다.

앙드레 쿠레주는 당시에는 실용적인 일상복에 지나지 않았던 팬츠를 무도회나 극장, 시내 외출용으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팬츠 패션을 고급 패션으로 끌어올렸으며, 그의 바지는 심플하고 타이트한 디자인으로 짧은 재킷과 함께 코디되어 전문직 여성들의 낮의 정장으로도 입게끔 되었다.

2. 우주시대 룩(Space Age Look)

1960년대 우주시대 패션은 우주여행에 대한 매혹에 의해서만 유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시대에

<그림1> 시가렛 팬츠(1963)
「패션디자이너 199.II」

<그림2> 겨울용 팬츠(1964)
「서양패션의 역사」

<그림3> 기하학적 라인의 우주시대 룩(1964)
「The Fashion Book」

어우러져 선택된 것이었다. 우주는 과학기술 전체를 상징했다. 60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취는 제작재료나 제작기법 뿐 아니라 디자인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기술 발달로 인한 다양한 컬러 사진을 담은 잡지와 영화, 텔레비전은 패션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당대에 우주에 관한 관심과 함께 최신 기술이 점점 삶의 일부가 되어감에 따라 우주의 모티브는 화제가 되었고, 우주과학에 관련된 모든 것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당시 많은 디자이너들이 미래주의적 감각이 돋보이는 스페이스 패션을 선보였는데, 앙드레 쿠레주는 여러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미래주의적 패션'을 처음 선보인 디자이너였다. 그의 1964년 F/W 컬렉션인 우주시대(Space Age)[15]는 그를 패션계의 영향력 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63년부터 조금씩 스커트의 헴 라인을 무릎위로 올리기 시작했던 그의 전위적인 시도는 종전의 모드가 갖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으로 오로지 엘레강스한 무드에 심취하고 있던 파리의 기성 디자이너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64년에 선보인 우주시대 컬렉션에서는 좀 더 스포티하고 기능적인 경향이 강조된 무릎을 드러내는 드레스와 부츠를 콤비네이션시켜 대담성이 큰 미래주의적 디자인으로 또 한 번 그의 창의력을 과시하였다.

이 컬렉션은 짧은 헴 라인의 심플한 드레스에 특이한 머리장식과 그리고 흰색 애나멜 가죽이나 새끼염소 가죽으로 만든 낮은 굽의 종아리 중간 길이의 부츠인 '고-고(Go-Go)부츠'가 특징이었다. 특히 이 고-고 부츠는 당시 유행하던 신발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스타일로 패셔너블한 젊은이들 사이에 대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들은 발렌시아에게서 배운 정확한 재단에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간결한 기하학적 라인의 우주시대 룩<그림3>처럼 그의 심플한 재단은 모더니즘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쿠레주의 우주시대 패션은 우주적 느낌의 A라인 실루엣과 조형미를 중시한 독특한 프로포션 그리고 미니멀리즘이 특징적이게 나타나며, 우주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흰색 정장이나 애나멜, 비닐 소재의 의상<그림4>, 다양한 컬러에 가발과 같은 독특한 액세서리<그림5>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

1961년 러시아인 이우리 가가린(Iouri Gagarone)이 최초로 우주여행을 하고,1965년 에드와드 위뜨가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상태로 유영하는 것이 TV에 방영되고, 1969년에 네일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새로 발견한 60년대에 우주여행의 복장과 특징은 은, 투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은색은 1960년대의 색으로 복식 뿐 아니라 새 건물들의 색으로도 사용되었다.[16] 앙드레 쿠레주 또한 청결과 순수의 상징인 흰색과 우주복과 우주선에서 보여지는 은색을 매우 좋아하며, 미래적인 색으로 사용하였다. 우주시대를 나타내는 투명함은 '시 스루(see-through)'라는 모드언어가 의미하듯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상반신에 직접 입은 짧은 상의, 투명한 시폰 등을 이용한 셔츠드레스[17], 셀로판지나 투명한 비닐 등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이어져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미래주의적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컨드 스킨, 즉 제 2의 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보디라인을 강조한 것으로 살갗인지 옷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축성 있는 소재의 개발을 촉진시켰고[18],그 외 새로운 소재로서 인조가죽·금속·유리·누빈목면의 프린트직물 등을 많이 사용하여 소재에 있어서도 실험적이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1968년에 발표한 또 다른 우주시대 룩으로 다시 한 번 패션계에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 당시 디자인들은 매우 기능적이고 잘 정돈되어진 미래주의적 디자인들로 그는 모델들에게 금속 브래지어와 뷔스티에를 착용하게 하였다. 또 1969년 그는 이집트 룩을 소개하는데, 금속 가발, 기하학적인 헤어 컷, 서리로 얼어붙은 듯한 입술표현 등으로 아방가르드 하고 미래주의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표현해냈다. 앙드레 쿠레주의 이러한 우주시대를 향한 미래주의적 의상들은 활기찬 성향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위한 패션이었으며, 그들의 부모세대와 확실한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패션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림4>비닐을 이용한 우주시대 룩(1964)
「http://www.designerhistory.com」

<그림5> 베이비 삭스(baby socks)와 가발을 착용한 우주시대 룩
「Fashion of a Decade:1960s」

<그림6> 직선적인 실루엣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미니스커트(1965)
「Courrèges」

3. 미니 룩(Mini Look)

1960년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했고, 동시에 미니멀리즘이 부각되면서 패션에 있어서도 젊은 감각의 미니 룩이 등장하게 되었다.

앙드레 쿠레주는 "새로운 기술과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 옷, 즉 상자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혔는데[19], 그의 생각 속에서 미니 룩은 현대의 모더니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미니"를 입으면 몸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쿠레주가 창조한 이 스타일은 실루엣을 타고 내려오는 시각적 리듬까지 염두한 것으로 이것은 움직일 때마다 폭발적 실루엣을 만들어 냈다. 그 역동성은 미래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그 미학은 구성주의 경향을 나타내었다.[20]

1965년 봄부터 앙드레 쿠레주는 미니 룩을 발표했다. 당시 그가 발표했던 미니 룩은 직선적인 실루엣에 옷의 길이가 짧고 스트라이프를 많이 활용 디자인<그림6>이 특징이었다. 종래의 여성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고상함이라는 관념을 타파했다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의 디자인은 활동성과 쾌활성, 건강미와 젊음을 상징하고 있었고, 특히 흰색의 활용이 두드러진 모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디자인은 즉시 전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활동적인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정착되기까지 했다.

그는 미니 룩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 당시의 발랄하고 쾌활했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듯 페일 핑크색의 새틴으로 된 데이지 문양이 아플리케 처리되어있는 흰색 쉬폰 원피스처럼 <그림7> 색깔있는 꽃무늬와 함께 흰색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한 격자무늬나 넓은 줄무늬 등을 아이스 블루, 페일 터어키색, 쿨 베이지, 데이글로 오렌지 그리고 라임 그린 등의 색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는 신체를 드러내는 의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체에 따라 소재를 선택했다. 주로 밀도가 높은 것으로 개버딘이나 양면 모, 면 레이스, 오간디 그리고 가죽 등을 사용하여 천의 소재를 윗면은 면으로 아래 면은 합성소재로 중간은 모직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색상을 한 쪽은 무늬가 없는 것으로 다른 한쪽은 자유분방한 색상으로 디자인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처리하여 다른 외관을 만들어 냈다.

쿠레주의 미니 룩은 옷의 형태와 구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건축학적 지식과 발렌시아가에게서 받은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그 어느 디자이너보다 탁월한 비율감각을 선보였다. 그는 그러한 감각을 잘 록한 허리대신 A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에 바이어스

<그림7> 페일핑크 새틴제의 된 데이지 문양 아플리케 미니스커트(1967)
「Fifty Years of Fashion」

<그림8> 바이어스밴딩 처리의 원피스와 모자(1965)
「Courrèges」

<그림9> 지퍼와 포켓이 특징인 스포티한 디자인(1969)
「패션디자이너 199, II」

밴딩<그림8>과 장식 스티치 등으로 단순하면서도 정밀하게 구성하는데 몰두했다. 과장된 것은 모두 떼어버리고 순수하고 정확하고 신선한 선을 이용하고 있는 그의 디자인에 대하여 당시 보그지는 "행운의 선으로 신선함을 주는 것"이라 평했으며, 패션계에서는 그를 패션의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라 칭하기도 했다. 쿠레주는 재단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옷의 기능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새롭고도 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려했다.

쿠레주의 미니 룩은 그때까지 터부시된 무릎을 노출시킨 혁명적인 발상으로 평가되어 쿠레주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가 보여준 미니는 단순한 실루엣의 변화만이 아니라 쿠튀르 시대에서 프레타 포르테 시대로, 나아가서는 젊은이의 모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모드에까지 수용되며 모드의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온 그야말로 모드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4. 스포티 룩(Sporty Look)

1960년대는 스포츠 패션이 성숙된 시기로 1963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스포티브 룩'이 처음 등장하면서 스포츠 패션이 주목을 받게됐다. 작업복과 스포츠 패션의 기능적 소재와 디테일들이 하이 패션(high fashion)에 디자인 아이디어로 도입되어 기능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이 시기는 현대디자인의 기본원리인 기능성과 단순성이 강조되는 기능주의가 절정을 이루었고 모든 계층에 걸쳐 '스포티브(sportive) 감각'을 즐겼다. 모드에 있어 기능성을 가장 중요시한 그의 디자인 철학은 시각에 즐거운 효과를 호소하는 유머러스한 감각까지 합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즐겁게 레저화로 믹스하려는 재치를 보여주었다.[21] 그렇기 때문에 그의 초기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하고 기능적인 경향이 강조된 디자인이 많이 보여졌고,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그의 디자인 경향은 기하학적인 커팅과 밸런스의 조화를 추구한 리드미컬하고 스포티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앙드레 쿠레주는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젊은 여성을 모델로 자주 활용함으로써 보통 여성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22]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도 그의 컬렉션에 자신의 단정한 디자인에 어울리는 모델로 운동 선수같은 근육질이며 볕에 탄 얼굴빛을 지닌 외모의 젊은 여성을 택했었다. 쿠레주의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패션계에 현대인의 스포츠 생활을 인식하고 사실상 받아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의 스포츠 시장은 1924년의 파리 올림픽 게임 이후, 의상실에서는 스포츠 판매대를 확장하고 특수의류를 제작하여 오트쿠튀르의 의상에 수영복, 해변용 판타롱, 반바지 외에 다른 것으로 스키 바지 같은 품목을 계속해서 첨

가하는 추세였다.

앙드레 쿠레주는 육상과 펠로타, 럭비, 등산, 스키 등 스포츠를 즐겼는데 그는 스포츠를 삶의 한 방식이나 행동규칙으로 생각하였다. 스포츠를 좋아했고 자신의 삶을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했던 그의 스포츠 웨어는 포켓·지퍼·후드·부츠 등의 기능적 디테일을 특징으로 한다. 지퍼가 특징인 디자인<그림9>과 같이 60년대는 플라스틱 지퍼가 개발된 때로 지퍼의 기능성이 보다 강조되어졌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퍼를 활용한 디자인을 하였으며 순수하게 장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그의 스포츠 웨어는 점퍼, 스트랩 팬츠, 몸에 꼭 끼는 꼴랑(collant)과 같은 형태로도 전개되었다<그림10>. 이러한 스타일들은 자동차 경주의 바둑판무늬 깃발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츠웨어<그림11>처럼 색에 있어선 주로 빨강과 흰색의 조합과 같이 강렬하고 쾌활한 색을 사용했고, 패턴은 격자무늬 또는 줄무늬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의 이러한 스포츠 웨어 룩은 역동적이고 젊음이 넘쳐났던 시대상황에 부합되며 매우 인기를 끌었다.

5. 액세서리(Accesorry)및 기타 디자인

앙드레 쿠레주는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줄 수 있는 토털 룩을 지향했으며, 이것은 올바른 액세서리의 선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였다. 쿠레주는 언제나 굽 없는 신발을 좋아했는데, 그는 앞코를 잘라낸 흰색 부츠와 낮은 굽의 메리 제인스(mary janes)를 소개했다. 이런 신발을 신으면 자세가 특이해서 다리가 아니라 넓적다리와 엉덩이가 눈길을 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자세 때문에 발걸음은 춤추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23] 쿠레주는 굽 없는 신발을 채택하면서 여성의 프로포션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굽 없는 낮은 부츠에 모자를 착용한 모델<그림12>처럼 여성들에게 미니스커트와 함께 모자나 빅 사이즈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 외에 그는 64년 우주시대 컬렉션에서부터 우주적인 느낌의 눈 부분에 슬릿을 넣은 흰색 개기 일식 안경<그림13>을 모델에게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안경의 경우엔 너무 전위적인 나머지 패션쇼 밖에서는 거의 착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흰색 깔끔한 장갑(일명 쇼티즈:shorties)은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IV. 쿠레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 순수한 아방가르드(Pure & Avant-garde)

1960년대는 기성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젊음이 약동하였던 시기로 미래의 이미지가 붐을 일으키고 상품화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시도되

<그림10> 점퍼,스트랩 팬츠 등의 코디,모델과 함께한 앙드레 쿠레주(1972) 「Courrèges」

<그림11> 자동차경주 깃발 이미지의 디자인(1965) 「Courrèges」

<그림12> 굽없는 낮은 부츠와 모자, 흰색장갑(쇼티즈)(1965) 「Courrèges」

었던 미,소의 우주정복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원천을 위해 과거나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쿠레주는 미래를 내다보았다.[24] 그의 아방가르드적 디자인은 강하고 현대적·자극적·미래적이었으며 우주탐험에 대한 많은 흥미를 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먼저,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의 아방가르드적 스타일은 '우주룩'을 바탕으로 은빛 금속 장식의 오간자 드레스<그림14>와 같은 금속소재나 은모 테이프,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자가 걷고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은 부분들이 반짝이고 흔들리어 정지된 고정미가 아닌 율동감을 주어 시각을 자극하는 소재들로 표현되었다. 또, 1969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스포츠웨어를 미래지향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그림15>에서 보여지는 비닐소재나 아니면 신소재 등과 같은 첨단소재에서 느껴지는 광택있고 매끈한 표면감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소재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는 테크놀러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낙관적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패턴적인 측면에서 그의 아방가르드적 면모을 살펴보면 이전 시대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직선적 또는 기하학적 선이나 점을 배치하였고, 블랙 앤 화이트의 옵 아트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학적 패턴은 인체에 입힘으로써 평면상의 굴곡을 가져와 인체의 운동감에 직물의 운동감이 한층 더해져 리드미컬한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25]

쿠레주는 색채적인 측면에서 옵 아트적인 기하학 패턴을 흑백의 색채나 원색과 흰색, 원색과 원색 등의 강한 색채 대비로 사용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각적 자극을 느낌으로써 강렬한 인상과 집중력을 일으키는 주목성이 강한 패턴을 연출했다.

이 외에 그는 독특한 모양의 안경이나 모자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그는 아방가르드적 이미지 속에서 미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그의 디자인은 순수한 선을 사용한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직선, 사선으로 인한 H라인이나 A라인으로 표현되었고, 우주와 낙관적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흰색과 은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하이테크 감각의 소재나 첨단소재, 또는 감성 공학적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인 동시에 우주 질서를 반영하는 미학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2. 모던 스포티(Modern & Sporty)

쿠레주는 그의 이상적인 고객을 '모던하고 인텔리전트한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활동적이고, 빨리 움직이며 일하고, 젊고 모던한 여성'으로 규정했다.[26] 패션 그 자체를 근대생활의 표현으로 생각한

<그림13> 눈 부분에 슬릿을 넣은 흰색 계기일식 안경 「Courrèges」

<그림14> 은빛 금속장식의 오간자 드레스(1969) 「Courrèges」

<그림15> 미래주의적 감각이 돋보이는 스포츠 웨어 디자인(1969) 「패션디자이너 1999. II」

그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어울리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그리고 젊어 보이는 옷을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디자인은 이전의 하이패션이 엘레강스하고 여성적인 앙상블이나 정장스타일이었던데 반해 불필요한 디테일과 장식을 제거하고 기능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디자인으로 모던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현대예술이 주장한 순수성의 지향[27]과 같이 순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의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1919년 설립된 유명한 독일의 미술 · 건축 ·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건축 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28]

앙드레 쿠레주는 먼저 그의 컬렉션에서 모델들에게 브래지어와 콜셋을 착용하지 않게 하여 인체의 자유와 활동적인 기능성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의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성 높은 팬츠 슈트와 몸에 넉넉하게 떨어지며 무릎을 드러내는 드레스를 선보였다. 특히 미니 드레스들은 대부분 1965년에 발표한 미니 드레스<그림 16>처럼 두꺼운 양모 개버딘과 같은 드레이프성이 없는 힘 있고 빳빳한 재료를 사용하여 옷 자체에 공간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는 A 라인, square 라인, trapeze 라인 등 기하학인 직선적 실루엣을 구축하였다. 이 밖에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기능성을 위해 그는 낮은 굽의 구두나 부츠를 신게 하였다.

1960년대에는 기계 문명의 발달과 편물기의 산업화로 신축성 있는 니트를 소재로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는 스포티하고 모던적인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소재로서 이러한 스트레칭성이 좋은 니트 등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육체의 자유를 최대한 표현해 주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소재에 있어 그의 디자인들은 드레이프성이 없는 매끈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양면 니트직, 양면 모직, 가죽, 개버딘과 같은 소재가 작품의 공간미, 직선적 라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는 한 면과 그 반대면을 다른 색으로 하는 양면으로 만들어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하는 컨버터블(convertible) 형식의 합리적인 디자인으로도 제시되었다.

그의 모더니즘적인 디자인들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장식이 배제된 특성에 따라 소재 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렸고, 깔끔하고 간결한 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에 최대한 디테일과 트리밍을 배제한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랐으며 포켓이나 지퍼 등과 같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포츠 레저 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웨어가 각광받으면서 그는 저지 니트 소재의 활동적인 의상과 캡(cap), 파우치(pouches)가 있는 벨트 등의 액세서리로 기능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색채는 프랑스 가수인 프랑소와즈 아르디가 입은 흰색의 울 팬츠<그림 17>처럼 전체가 흰색이라던지, 아니면 흰색을 주지색으로 하여 원색과의 강렬한 대비효과를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특히 흰색의 사용은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실루엣, 비장식적인 간결함과 함께 모던한 디자인을 부각시키는 요소로써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출현과 함께 모드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며 쿠레주의 디자인 특징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심플하고 활동성이 가미된 라인(line)으로 승화시켜 성숙한 여성까지도 젊어보이도록 하는 데 있었다. 앙드레 쿠레주는 과거의 엘레강스하고 풍만한 여성의 육체를 부정하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젊은 여성상을 창조함으로써, 단순히 드레스의 실루엣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 움직임까지 변화시켰다. 그에 의해 창조된 여성은 좀 더 합리적인 모더니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체로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되었다.

3. 경쾌한 노출(Cheerful & Reveal)

당시의 미니멀리즘은 복식에도 영향을 끼쳐 최소화된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앙드레 쿠레주의 미니스커트는 복식에서의 최소화된 스타일의 대표적 전형이었다. 이러한 복식크기의 최소화는 여성들의 노출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20세기 후반 다양한 성정체성으로의 의식전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식에 성에 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을 가져왔다. 그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표현의 욕구가 분출되어 노출이 심한 의상에서부터 은폐를 통해 은유적으로 성적

<그림16> 양모 개버딘으로 된 A자형 실루엣의 미니드레스 (1965)
「Courrèges」

<그림17>쿠레주의 울 펀츠슈트를 입은 프랑소아즈 아르디(1965)
「Radical Rags」

<그림18> 배꼽을 노출한 이브닝 판탈롱(1964)
「20th Century fashion」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까지 그 표현력은 극대화되어가고 있다. 60년대는 새로운 성문화가 영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영 패션(young fashion)시대의 시작과 함께 크게 부각된 보디 컨셔스 룩(body conscious look)은 미니스커트 · 시스루(see-through) 스타일 · 쇼츠(shorts) 등 신체의 노출이 과장되었고, 미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옷이 주체가 되어 육체를 지배하려는 옷의 기능에서 벗어나 육체가 주체가 되어 육체를 보완하고 육체의 자유를 충분히 표현하게 해주었다. 불필요한 여유분을 제거하고 단순한 실루엣을 형성했던 1960년대 쿠레주의 미니룩은 육체의 노출로 인해 인간 자유에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수단이었으며 성적 매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 그대로를 복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그의 경쾌한 노출적 스타일은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 어떤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 노출, 보디 컨셔스에 의한 신체라인의 노출인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여유분을 제거한 짧은 길이의 미니 스커트와 숏 팬츠(shorts pants)등으로 다리와 허벅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매를 없앤 디자인으로 팔까지도 노출하였으며, 인류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배꼽을 노출시키는 팬츠 스타일<그림18>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닐을 이용해 허리를 노출한 디자인<그림19>처럼 플라스틱이라던지 셀로판 등 완전 투시되는 투명한 소재를 의복에 삽입하여 신체를 직접노출시키기도 하였으며,와플패턴 오간자 점프슈트 입은 도니엘 루나<그림20>처럼 net조직이나 cut-out등의 방법으로도 신체를 직접노출시켰다.

둘째로 시-스루 스타일에 의한 신체의 간접적 노출로 오간자(organza)[29], 오건디(organdy, organdie)[30] <그림 21>, 쉬폰 등의 투명하고 얇은 효과를 내는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의 실루엣을 간접적으로 노출시켰다.

마지막으로 보디 컨셔스에 의한 인체의 실루엣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쿠레주는 니트같은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이용하여 보디 슈트처럼 몸에 완전히 피트(fitted)되는 디자인으로 신체라인을 노출시켰다.

앙드레 쿠레주의 노출적 스타일은 우아하고 농염한 스타일의 관능적인 노출이 아니라 당시의 '젊음(youth)'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들의 에너지와 성적인 관심을 마음껏 표출시켜 줄 수 있는 경쾌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1960년대 쿠레주의 디자인들은 육체의 노출로 인해 인간 자유에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수단이었으며 성적 매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 그대로를 복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그림19> 시 스루 미니드레스(1967)
「20세기 모드」

<그림20> 흰색의 오건디 이브닝 드레스(1969)
「Radical Rags」

<그림21> 와플패턴 오간자 점프 슈트를 입은 도니엘 루나(1968)
「Radical Rags」

4. 역동적 유희 (Dynamic & Funny)

1960년대의 영 패션 경향에서는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요소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희적 경향은 매우 감각적이고 쾌락을 구가하려는 경박스럽기조차한 젊은이들의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 영 패션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31)]

유희적 경향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로 그려지며 기계적, 두뇌적인 과학 정신보다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의 가치를 중요시했으며 자기표현, 개인적 자유, 모든 권위에 대한 반란, 전통의 거부를 나타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문명에서의 유희적 스타일은 복잡한 현대 기계 문명 속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즐기려는 욕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계 문명의 비인간성과 구속력, 그리고 우주 과학을 가능케 한 이성에 관한 맹신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감을 유희적으로 풀려는 의지의 표출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쿠레주의 디자인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가벼움으로 특징지워진 활기차고 즐거운 유희적 요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는 안경을 쓰고, 미니스타일의 극소화된 스커트를 입고 동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델<그림22>에게서 우리는 이전의 전통적 크기나 표정, 동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 즉 기존의 미적 개념을 깨고 미적 유희로 자유로운 감정을 가지게 하여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쿠레주의 유희적 스타일들은 옷 자체보다는 그 디테일이나 모자, 안경을 비롯한 액세서리 등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졌다. 그는 그의 모든 의상을 턱에 매는 아기의 보닛 혹은 카우보이의 모자나 야구모자, 눈만 보이게 한 불투명하고 하얀 선글라스 그리고 손목까지 닿는 하얀색 아기의 장갑 등과 함께 매치하여 선보였는데 그러한 것들의 앙증맞은 모습과 유치함이 일상적 범주에서 이탈하여 즐거움을 주었다.

쿠레주의 창작 중심에는 어린 시절의 천진하고 순진한 세계가 새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옷의 재단과 바느질을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어린이옷의 재단방식 및 바느질을 찾아볼 수 있는데[32)], 이는 헴 라인을 스캘럽으로 표현한다던지<그림23> 어깨와 힙을 요크로 처리하는 등 성인 복식에 유아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쿠레주의 복식을 두고 샤넬은 " 그 사람은 악착같이 여성을 파괴하고 몸매를 감추고 여성을 어린 소녀로 만들어 놓지요." 라고[33)]하며 즉각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앙드레 쿠레주의 유아적 디자인은 연령 파괴가 유발하는 유희성에 의하여, 어렸을 때 느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사회적 연력이 부과하는 역할에서의 해방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유아적 유희의 쾌감을 통하여 여성들은 억압된 전통적

<그림22> 니트로 만든 보디드레스(1969)
「패션디자이너 199. II」

<그림23> 기성복 울 드레스 (1967)
「Radical Rags」

<그림24> 비비드 컬러의 빨간 비닐코트(1969)
「Les Années 60 d'Anne Bony」

여성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려고 하였다. 한편, 소재에 있어선 하이테크 발전에 따른 신소재인 공업용 비닐도 팝아트에서와 마찬가지로 패션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는데, 그는 이러한 비닐소재를 1969년 발표한 빨간색 비닐코트<그림24>처럼 특히 컬러를 비비드한 색채로 사용함으로써 영 패션 문화가 갖고 있는 가벼움과 생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해냈다.

이렇듯 그의 디자인 철학은 모드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시각에 있어 즐거운 효과를 호소하는 유머러스한 감각을 추구한 것이다.

이상에서 도출해 본 1960년대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요약 및 결 론

이상으로 쿠레주의 디자인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의 디자인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 쿠레주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1960년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베이비 붐 시대 태어난 영 세대(young generation)가 대중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시대로 기능주의와 모더니즘의 시대였다. 디자인은 '영 세대'의 욕구와 현실생활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필요로 하였는데, 앙드레 쿠레주는 이들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디자이너였다.

쿠레주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확립했던 1960년대 디자인 경향을 보면 그의 디자인은 심플함을 추구하며 현대 모더니즘의 정수를 이루었다. 그는 팬츠 슈트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으며, 무릎 노출과 복식역사상 처음으로 배꼽을 노출한 판탈롱 룩으로 현대패션에 혁명을 가져왔다. 특히 미니스커트는 복식에서의 미니멀리즘을 대표했으며, 스포티하고 기능적인 경향이 강한 의복들을 통하여 종래의 여성다움으로 생각했던 우아함, 고귀함 등의 개념을 무시하고 활동적이고 경쾌하며, 건강미와 젊음을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을 디자인했다.

쿠레주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순수를 지향하는 단순성과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 흰색과 은색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색을 사용하여 낙관적 미래를 꿈꾸는 대중에게 미래지향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의 현대적인 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스포티하고 기능성을 중시한 모던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또한 미니멀한 복식과 시스루 소재 등을 통한 육체의 직·간접적 노출을 밝고 경쾌하게 표현했으며, 재미있는 액세서리나 베이비 돌 룩, 강렬한 색감의 사용 등을 통하여 기계문명의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젊음을 상징하

<표 1> 1960년대 앙드레 쿠레주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조형적 특성	스타일	구체적 디자인	이미지
순수한 아방가르드 (Pure & Avant-garde)	-우주시대 룩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스타일로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함. -신소재나 하이테크 감각의 첨단 소재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어 미래지향인 우주적 느낌을 줌.	-금속, 비닐, 은오 테이프, 플라스틱, 에나멜 등의 '우 단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재사용. -직선이나 격자 등 옵아트적인 기하학적 패턴사용. -흰색과 은색의 색채사용. -개기일식 안경, 고글, 헬멧 형태 모자 등 독특한 액세서리 매치.	
모던 스포티 (Modern & Sporty)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간소화하고, 장식을 배제한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취함.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명료한 대칭적 구조를 이룸.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소재나 아이템, 디자인 요소가 도입된 자유로운 활동에 적합한 디자인.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직선적 실루엣. -낮은 굽의 구두. -니트, 스판엑스, 양면 소 재 등 기능성 소재 사용. -흰색 또는 흰색과 원색의 색채 대비 효과를 통한 간 결한 실루엣 강조. -포켓이나 지퍼 등의 디테 일 도입.	
경쾌한 노출 (Cheerful & Reveal)	-건강과 젊음의 지향, 이너룩 및 스포츠의 대중화로 자연스러운 건강미와 인체미를 강조. -신체부위의 직접 및 간접 노출 또는 보디 컨셔스에 의한 신체 라인의 직접적 노출.	-직접노출 by 미니 스커트, 숏팬츠 by 비닐 등 완전투시되는 매개체 by cut-out 또는 net조직 -간접노출 by 오간자, 오건디 등의 시-스루 소재 -신체라인의 직접노출 by 스트레치성 소재를 사 용한 보디 피트(body -fitted)되는 디자인.	
역동적 유희 (Dynamic & Funny)	-젊은 세대들의 가벼움과 활기찬을 다소 유치하고 유아적인 디자인들로 표현해냄으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줌.	-재미있는 모양의 안경이나 모자 등의 액세서리. -스웰컵이나 요크 등과 같은 유아적 복식에 사용하 는 디테일 도입. -비비드한 컬러의 색채사 용.	

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유희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여 다음 시대의 패션을 예견했다.

앙드레 쿠레주가 시대를 초월해서 소멸하지 않는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사회심리를 반영하는 온갖 지표들을 읽어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날카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요구되어질 복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960년대 이전의 패션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며 현대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시대가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미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드의 대변혁을 이끌었다.

앙드레 쿠레주는 21세기를 향한 모드혁명은 새로운 메커니즘의 사회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여성의 복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사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 맞는 모드 또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제시될 모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앙드레 쿠레주의 신념처럼 아무런 속임수를 쓰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과거의 답습이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을 창작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밸러리 멘테스,에이미 드 라 헤이 저,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서울:시공 사, p.172
2) Elizabeth Wilson & Lou Taylor(1990), "*Through the Looking Glass*",London:BBC Books, p.158.
3) 밸러리 멘테스, 에이미 드 라 헤이 저, 김정은 역(2003),앞의 책, p.172.
4) 이러한 미래적인 사고는 1960년대 중반 미니멀리즘, 팝아트(Pop Art), 옵아트(Op Art) 등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감각의 새로운 예술이 유행으로 나타났으며, 컬러나 패턴에 있어 추상적 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나 강렬한 색의 배합이 나타났다.
5) 최비숙(1997),"*미니 스타일 복식의 문화적 의미*",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
6) 조규화·이희승(2004), "*패션미학*",서울:수학사, p.221.
7) 조규화·이희승(2004), 앞의 책, p.218.
8) 조규화·이희승(2004), 앞의 책, p.220.
9) 조규화·이희승(2004), 앞의 책, p.217.
10) Russell, Douglas A.(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Prentice-Hall, p.469.
11) 데이브 본드 저, 정현숙 역(1992),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p.210.
12) Valerie Steele(1997), "*Fifty Years of Fashion*", Yale University, p.50.
13) 조규화·이희승(2004),앞의 책, p.515.
14) 조규화·이희승(2004),앞의 책, p.220.
15) 제임스 레버 저, 정인희 역(2005), "*서양패션의 역사*", 서울:시공사, p.288.
16) 베비스 힐리어 저, 조규화 역(1993), "*20세기 양식*", 서울:수학사, p.222.
17) 조규화·이희승(2004),앞의 책, p.220.
18) 김현주(2004), "*Liquid Latex를 이용한 미래주의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8.
19) Valérie Guillaume (1998), "*Courrèges*", London: Thames and Husdon Ltd., p.5.
20)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8.
21) 가재창 편저(1995), "*패션디자이너 199, II*", 서울:정은, p.32.
22)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10.
23)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7.
24) 임수미(1997),"*Space Age Fashion의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
25) 이정옥 외 (1995),"*패션과 의생활*", 서울: 형설출판사, pp.119-120.
26) Mendes,Valerie(1999),"*Black in Fashion*", London : V&A Publications, p.95.
27) 조규화·이희승(2004),앞의 책, p.86.
28)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9.
29) 얇고 투명한 평직의 옷감으로 나이론, 견, 레이온 등으로 만든다. 오건디보다 빳빳하고 이브닝 드레스, 블라우스 등의 가장자리 자식, 심지 등에 많이 사용된다.
조규화(1995), "*복식미학*", 서울:경춘사, p.391.
30) 얇고 가벼우며 투명하게 비치는 면이나 폴리에스테르의 직물로서 세탁 후 에도 촉감이 변하지 않는다. 드레스, 블라우스, 칼라, 트리밍 등에 사용한다.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화장대 위에 깔아놓고 그 위에 화장용구와 화장품을 놓기도 했었다.
조규화(1995),앞의 책, p.391.
31) 최비숙·조규화, "1960년대 영 패션이 현대 패션 산업에 미친 영향", *패션비즈니스*, 2권 2호, p.14.
32)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17.
33) Valérie Guillaume (1998),앞의 책, p.16.

(2007년 5월 18일 접수, 2007년 7월 20일 채택)